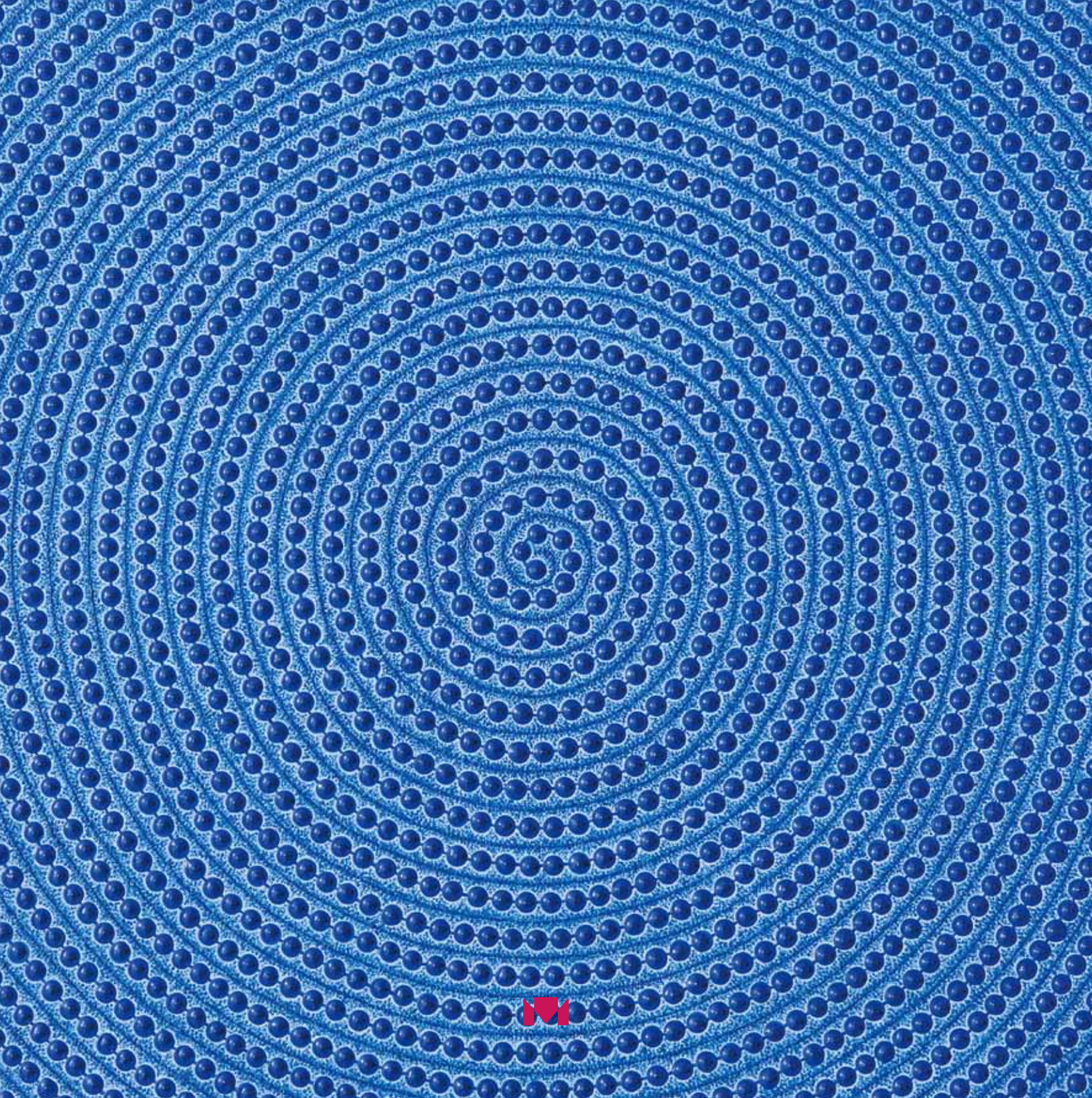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8 SUMMER VOL. 103

+ THEME MECENAT

문화예술교육,
창의적으로 혁신하라



모차르트 최고의 걸작, '다 폰테 시리즈' 중 두번째 공연!

LOTTE
CONCERT HALL

콘서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Le nozze di Figaro

2018. 07. 06 Fri 19:30 | 07. 07 Sat 17:00

롯데콘서트홀

• R석 15만원 • S석 11만원 • A석 7만원 • B석 4만원 •

할인: 빈야드 블랙 10% / 레드 5% · 롯데카드 10% · 청소년 20%

2018
ORGAN
SERIES

오르간 시리즈 X.
THOMAS TROTTER

토마스 트로터

7. 12 Thu 8pm
롯데콘서트홀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할인: 빈야드 블랙 10% / 레드 5% · 롯데카드 10% · 청소년 20%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토마스 트로터

프로그램

바흐
프렐류드와 푸가 e단조 BWV 548

바그너
리엔치 서곡 (편곡: 르마레)

엘가
오르간 소나타 G장조, Op. 28 외 다수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ightics Cloud

집계형, 예측형 분석을 넘어 **지능형, 처방형 분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데이터 속에 숨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고 계십니까?

삼성SDS Brightics Cloud는 컨설팅, 분석모델링, 분석모델 관리를 수행하는
플랫폼 기반 기업데이터 분석서비스입니다.

삼성의 제조, 물류, 판매, 마케팅 혁신을 가져온 바로 그 기술로,
고객의 사업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혁신을 약속합니다.

분석전문가 컨설팅

업종전문 Data Scientist 그룹의 심도 있는 기업데이터 분석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AI 기반 분석모델링

AI와 머신러닝에 기반한 강력한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Brightics로 빠른 비즈니스 모델링과 직관적인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지원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모델 제공으로 분석서비스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부담을 낮췄습니다.

Brightics Cloud Free Trial 회원가입만으로, Brightics Cloud의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QR코드 참조)



SamsungSDS **Brightics** cloud

지금 바로 www.samsungsds.com에서
삼성 SDS Brightics Cloud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삼성SDS

SAMSUNG

문화예술교육, 창의적으로 혁신하라

테마기획

칼럼

문화예술로
성장하고

변화하다



인터뷰

정부와 기업,

지역 생태계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인포그래픽

수혜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과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의 변화



메세나 통권 103호

발행일 2018년 6월 12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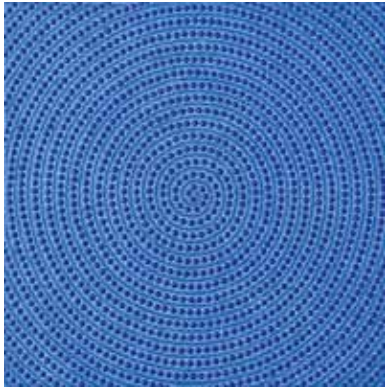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작품_〈점철(點綴: Dot to dot)〉 캔버스에 아크릴물감, 45.5×45.5cm, 2018년

정수미 작가는 무수한 작은 점들을 하나하나씩 찍고 연결 지어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 화면을 채워나가는 점철(點綴) 기법을 시도한다. 작가에게 이 작업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듯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잘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작가에게 점은 삶의 조각들이며 일상의 편린이다.
- 임은신 큐레이터(도로시 살롱 대표)

작가 정수미(鄭綉美)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2018년 도로시 살롱에서 개인전 〈닷 매트릭스 DOT MATRIX〉를 가졌고, 2015년 세텍아트 갤러리, 2013년 더 리파이너리, 아트빈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무온 아트스페이스, 반디 트라스 갤러리(홍콩), The 25th LELA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17(요코하마, 일본) 등에서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문화 CSR

16 메세나 가까이 보기

음식과 그림이 어우러진 시간
한성자동차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문화예술의 세계를 체험하다
LG연암문화재단 'LG 꿈꾸는 프로듀서'

직접 느껴보는 클래식 매력
LG연암문화재단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

환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키즈오페라
〈안녕? 딸꾹!〉
중근당 '중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22 아름다운 동행

한국미술의 미래,
신진 작가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중근당 예술지상

30주년 맞은 춘천마당축제,
축제의 도시를 쌓아 올리다
현대백화점 & 춘천마임축제

차세대 국악 명인을 뽑는다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
현대자동차그룹 & 국립국악원

소아암 아동들의 꿈을 담다
'드림마스크'
롯데월드 & 에이드런

올림픽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평창
동성코퍼레이션 & 평창대관령음악제

한국 단편소설의 재탄생, 뮤지컬 〈일쭉〉
예술지원 매칭펀드 - 케이옥션 & 우컴퍼니

홍겨운 판소리 한마당
〈안숙선과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농협세종본부, 이텍산업 & 세종시문화재단

메세나 포커스

30 메세나 스토리

예술가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 코코 샤넬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효준

38 해외 메세나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중국 문화예술 지원의 오늘

42 메세나 갤러리

Alex Katz, Models & Dancers:
아름다운 그대에게
롯데뮤지엄

46 전통과 현대의 조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 '민화'
한국 민화와 유럽·미국 민화

함께하는 메세나

50 메세나 소식

한국메세나협회 기자간담회 개최
제2회 네오메디치포럼 개최

51 메세나 서재

〈세상을 놀라게 한 경매 작품 250〉
마로니에북스

52 회원사 소식

56 회원사 소개



문화예술교육,



창의적으로 혁신하라

칼럼 문화예술로 성장하고 변화하다 글. 류해석
인터뷰 정부와 기업, 지역 생태계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인터뷰. 양원미
인포그래픽 수혜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과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
음성표 현

국내 문화예술교육은 십여 년간 가파르게 양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시도될 것인지, 예술가와 학생의 창의적인 만남과 소통의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을 실행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모두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기관과 기업, 지역사회의 각기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



01

칼럼

문화예술로 성장하고

변화하다

나무 한 그루를 집 안마당에 심어두면 어느 순간 내 키를 넘어서고 있음에 새삼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되고 자연의 흐름은 사람의 시간보다 더 강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의 성장은 집마당에 심어놓은 나무의 시간만큼 강인하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문화예술은 시나브로 물들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01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02
<북촌 제주신화 뮤지컬 축제>
연습이 한창인 학생들

03
초등학생의 발리댄스 공연

‘지난 십여 년간 문화예술 교육정책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2005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준 이후 수없이 많은 연구보고서와 예술교육 실천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5년 1,628명에서 2016년 5,357명의 예술강사가 활동하면서 3.3배 이상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변화와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변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공허한 메아리로 허공에 떠돌아 다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이 그동안 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함께 해 왔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됐다.

문화예술교육은 나무의 성장처럼 속도가 아닌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발전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가령 속도를 중요시 여기게 되면 지원사업의 개수와 수혜학생 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례만 부각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책 입안자, 중간 매개단체, 실행단체들은 실적과 행사성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거나, 긍정적인 우수 사례 발굴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다. 이런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예술적 상상력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과 중간 매개단체, 실행단체와 실천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주체들은 교육 현장을 돌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수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또 예술강사, 예술단체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그들과 학교,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인 시민,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섬세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열정적인 실무자와 실천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정책을 결정하

02



03





04

04
야카펠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외이웃 대상의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인제남초등학교 학생들



05

05
공예 수업에서 만든 도자기 화분



06

06
음악극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

07
교내 예술축제에서 친구들의 공연을 보고
환호하는 아이들

는 사람들일 수 있다. 켄 로빈슨(Ken Robinson)은 <학교혁명>이라는 책에서 현명한 리더는 “수용과 재구조화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수용할 수 있으며, 공부하는 리더가 되어야 다양한 실무자들과 현장의 요구를 재구조하여 올바른 예술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과도 닮아 있다. 예술가는 사물이나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자기화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상을 표현한다. 이런 예술가의 상상력과 과정은 학생들과 만나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관계맺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정책 입안자들을 탄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고 방향인 것이다.

예술가와 학교의 만남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이룬 우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와있다. 양적 성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인식의 성장을 가

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적인 성장을 돕는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위주, 예술가 중심, 도구로서의 예술로 학생 성장을 도왔다면 이제는 장르 간 융합, 학생과 현장 중심, 예술 그 자체가 지식인 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예술가와 학생이 만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스스로 예술가의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예술 언어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프로그램에서 프로젝트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예술의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찾아가는 여행의 과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이 예술을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학생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문화



예술교육이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학생 주변의 대상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재탄생되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학생이 원하는 대상과 학교 현장의 직면한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접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시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미래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창의적 시선과 주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력과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셋째, 타 교과와 지식습득과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닌,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고 타 교과와 지식을 '창의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관점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물을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력을 갖게 한다. 문화예술 교과 외에 타 교과와 지식들을 가르칠 때, 예술은 보다 다양한 시선으로 지식을 생각하고 비평하며 감상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암기위주의 지식도 예술과 만나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예술은 그 자체에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 지식의 기초이자 해답이 될 수 있다.

지역문화와 호흡하는 문화예술교육

한편으로, 학교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의 이야기와 마을의

문화자원이 교육 소재가 되고, 마을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현장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마을 주변을 탐색하고 마을 골목길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예술적 행위가 학교를 넘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소통과 만남의 과정으로 교육의 선순환을 지역사회에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학교에 교자재와 재원을 지원해주기도 하는 등 한 아이의 성장에 사회적인 노력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을 되돌아보면, 교육적인 중요성과 가치는 강조되고 있는 데에 비해 학교 현장의 현실은 그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 지체되고 있는 느낌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경쟁과 서열화의 사회구조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강국론>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순기능은 건강한 개인의 성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건강한 한 아이의 성장에 모두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 진정성 있게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스스로 예술의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찾아가는 여행의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07



정부와 기업, 지역 생태계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인터뷰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자문과 정책연구 활동을 해온 양현미 상명대 교수가 작년 11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빠르게 발전해온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의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문화예술교육 전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현미 제5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2012 ~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2014 ~ 2015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2014 ~ 2016 서울특별시청 문화체육정책관
2017 ~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201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은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해왔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지대한 나라답게 정부와 민간 모두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현미 원장은 급속한 발전 중에 생겨난 여러 문제 중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역 생태계 안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에서 강사를 직접 뽑아 지방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시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교육도 부족하게 됐죠.”

양현미 원장은 누구나 지역 안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하며, 그걸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지역단체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 팔복예술공장이 좋은 예다.

“팔복예술공장은 전주시가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폐산업시설을 제공하면서 생겨난 창작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술교육이 더해졌죠. 팔복예술공장 입주 예술가들이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덕분에 지역 아이들은 좀 더 긴밀하고 연속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가족 단위로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는 팔복예술공장이 하나의 롤모델로 잘 자리 잡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현장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단체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첫 단추를 끼기 어렵고 복잡한 ‘교육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아에서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서는 더 그렇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이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고도화입니다. 이제까지와 같은 중앙의 일괄 방식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생애주기보다 더 다각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기의 교육을 학교 교육지원으로만 생각한다면 학교 밖 아이들은 당연히 소외받게 되겠죠. 물론 지금도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교정시설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나 홍보 강화 등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양현미 원장은 이를 위해 대중문화 교육 지원 등, ‘문화’와 ‘예술’에 포함되는 장르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 웹툰 작가를 꿈꾸는 이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단순히 교육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양한 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연극 교육을 지원했어요. 미혼모와 그 아이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죠. 모두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보니 사실적인 스토리로 호평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미혼모와 아이들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치유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워라벨, 소확행, 율로 열풍이 거세어졌습니다.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고요. 이때 기업에서 직원복지와 관련해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해 후원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정책 자문활동을 해온 양현미 원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기업들이 할 일에 대해 이렇게 해답을 내놓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업과 함께하는 교육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새싹학교’입니다. ‘예술꽃 새싹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기반을 다진 ‘예술꽃 씨앗학교’가 새싹으로 발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원받은 학교 중에, 특히 2011년에 지정된 창호초등학교(경남 거제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가조도’라는 작은 섬마을에 있는 이 학교는 당시 전교생이 36명밖에 되지 않아서 폐교를 고려해야 할 정도의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을 받아 전교생이 목관악기 앙상블에 도전하면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악기를 사고 함께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 결과 섬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꿈소리 앙상블’이 탄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앙상블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외지에서 이사 오는 학생이 생겨나 학생 수가 8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예술꽃 씨

앗학교’ 사업에는 이러한 좋은 사례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원이 종료된 학교 중 일부를 선발해 ‘예술꽃 새싹학교’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KB국민은행(2012~2014년)과 신한은행(2015~올해)이 후원해왔습니다. 민간의 재원과 연계해 지금까지 총 34개의 새싹학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혜자도 만족하는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죠. 저는 기업이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때 메세나 활동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던 양현미 원장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기업 메세나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열풍을 타고, 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후원한다면 복지와 문화예술교육 후원을 연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수요층은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 기업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혜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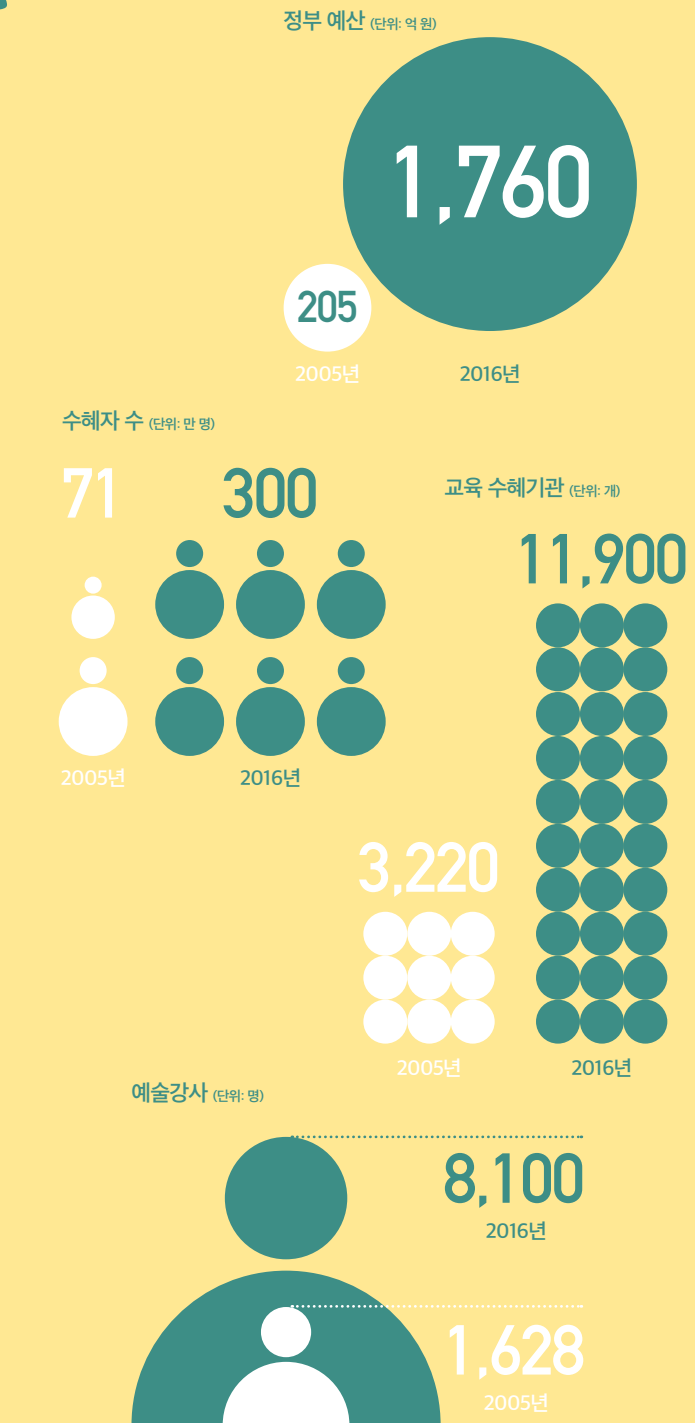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의 변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에 의해 급성장해왔다. 제도와 시행 기관을 만들고, 예산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문화예술교육 붐을 일으켰다. 인포그래픽 자료에서 보듯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0여년 간 진행된 결과는 매우 눈부시다. 기업과 민간기관 등의 역할도 컸지만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대하게 작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지속 확대되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1월 11일)했다. 이 계획은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 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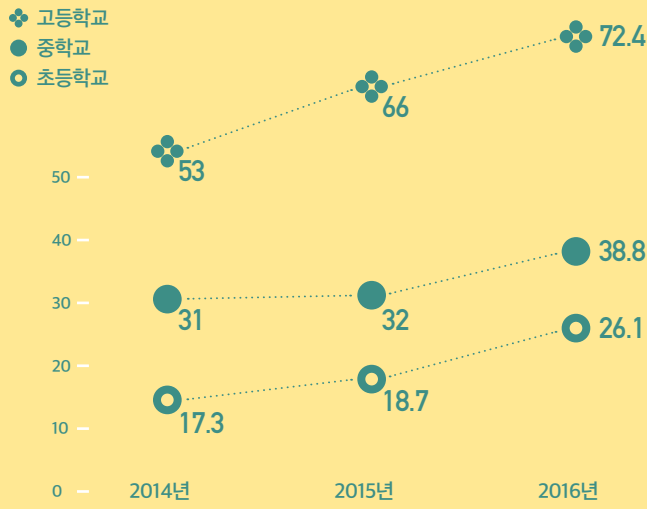
련하게 되므로 중앙과 지역, 지역 내 기업·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된다. 유아부터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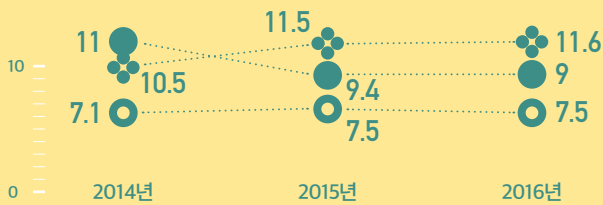
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예술 분야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과학기술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있다. 이미 산업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예술가 창작활동이나 아동·청소년 교육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어, 이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질적인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문화예술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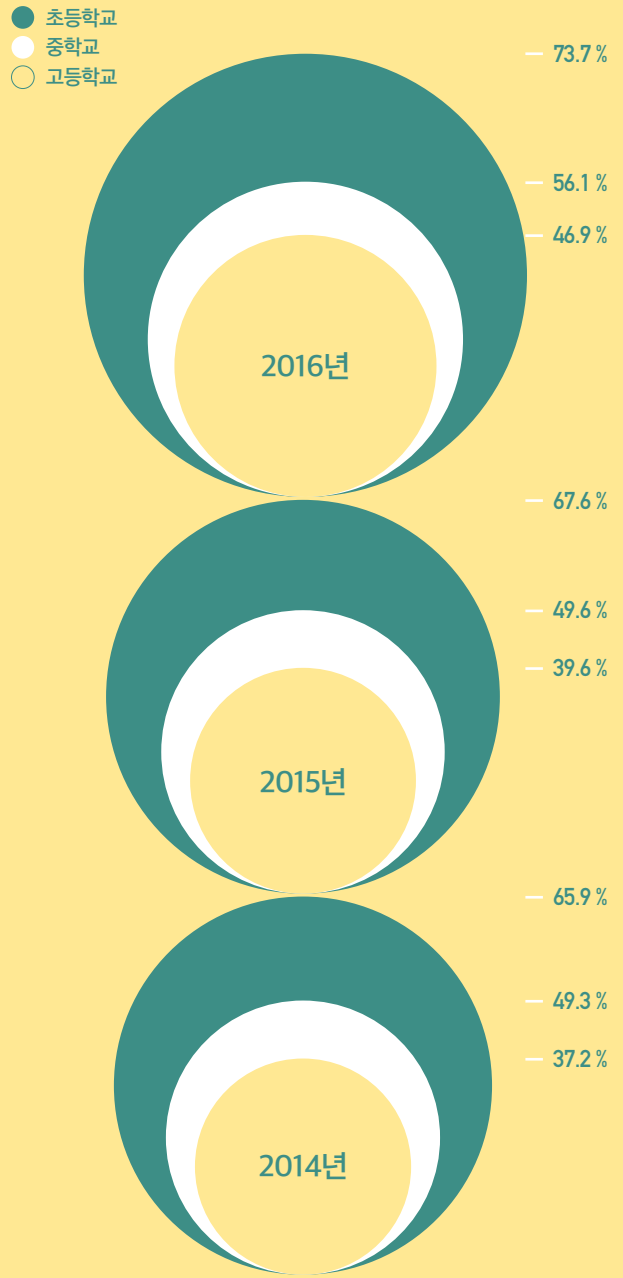


초·중·고 동아리 평균 개수(2014~2016년)



문화예술 동아리 평균 개수(2014~2016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동아리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비해 문화예술동아리 수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동아리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경우로 볼 수 있다.



예술특색사업 운영율(2014~2016년)

많은 학교가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예술특색사업의 운영율을 살펴보면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그 요인은 학교 자체 예산 외에도 지자체, 정부·교육청, 기업 지원 예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예술을 체험하고 문화 감수성 함양을 하는 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2016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1 음식과 그림이 어우러진 시간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한성자동차의 미술 영재 지원사업 드림그림은 지난해부터 5월에 드림그림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강촌 엘리시안에서 'Food & Ar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매년 새로운 방식의 미술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드림그림 프로그램인 만큼, 음식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한 장학생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01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힐링캠프

who
드림그림 장학생, 달토당의 안현빈 대표, 김은아 작가, 그랑아무르의 이형준 셰프, 김은수 디자이너

what
드림그림 장학생들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한국화 마카롱을 만든다

“배경을 이렇게 짝 채워서 칠하면 잘 마르지 않고, 마카롱이 녹녹해져”

흔히 디저트로 즐겨 먹는 마카롱. 그 위에 그림 그리는 것을 상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의 힐링캠프에서라면 가능하다. 힐링캠프 첫 번째 시간은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 달도당의 안현빈 대표와 함께하는 ‘한국화 마카롱 디저트’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민화를 주제로 식용 색소를 활용해 개성이 담긴 디저트를 만드는 시간. 서양화 중심의 입시 미술에 익숙한 장학생들에게 한국화는 매우 생소한 소재였지만, 민화를 마카롱 위에 그려내는 섬세한 손길에서 드림그림 장학생들의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름 5cm 남짓 한 작은 마카롱 위에 작은 붓으로 신윤복의 미인도를 그리는데 드림그림 장학생들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작은 붓질 하나도 쉽게 넘기지 않는다. 붓끝에서 조선 시대 민화뿐 아니라 어벤저스 시리즈 같은 서구적인 아이템도 동양적인 이미지로 재탄생 했다. 한국화를 접해보지 못했다든 것이 믿기지 않을 놀라운 솜씨였다.

상상력을 더한 식재료와 음식을 그린다

“토마토를 똑같이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토마토를 보고 떠오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두 번째 날 진행된 수업은 수채화를 활용한 음식 재료 그리기였다. 김은아 작가와 함께한 이 시간은 식재료를 탐구하고 일상적인 음식 재료를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해 상상력을 가미한 식재료들과 음식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농담의 조절과 같은 수채화의 특징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연습에 들어간 장학생들은 많은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수업을 진행한 김은아 작가는 장학생들의 스킬과 감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은 디렉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변화하는 모습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하는 김은아 작가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미술 작품은 함부로 평가하거나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위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음식과 함께한 미술 수업

“나만의 요리와 플레이팅이 즐거워요.”

수업이 끝난 후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레스토랑 그랑아무르의 이형준 셰프와 그림으로 그리던 식재료들을 직접 만지고 다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형준 셰프가 가스파초 같은 비교적 간단한 조리법의 요리 시범을 보이면 장학생들이 요리를 만들고, 그렇게 완성된 요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플레이팅을 한다. 이날 캠프에 참여했던 서지인 장학생은 “음식과 함께하는 이번 미술 수업이 매우 좋았다”며 “평소에는 입시 미술 말고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힘든데, 드림그림 수업에서는 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날에는 김은수 디자이너와 왁스 타블렛 만들기 시간이 진행되었다. 장학생들이 직접 수목원 등에서 채취한 꽃과 나뭇잎 등을 활용해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끝으로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 특별한 영감을 받은 힐링캠프가 마무리되었다. **MM**

01

힐링캠프에 참여한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장학생들이 마카롱 위에 뛰어난 솜씨로 한국화를 그려냈다.

02

장학생이 음식 재료를 주제로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03

마카롱 위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그림

04

마카롱 위에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장학생들



01



문화예술의 세계를 체험하다

LG 꿈꾸는 프로듀서

01
학생들은 그동안 무용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으로 쏟아냈다.


02
약 1천여 명의 중학생들이 '2018 LG 꿈꾸는 프로듀서'에 참가했다.

“무대에 설 때 관객들이 이렇게 많으면 떨리지 않나요?”

“관객의 수 보다는 관객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며 공연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데, 오늘 뜨거운 박수 소리에 긴장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지난 5월 24일, LG아트센터에서는 발레 <헨젤과 그레텔>을 관람한 1천여 명의 중학생들과 무용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 청소년 공연예술 분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LG 꿈꾸는 프로듀서'의 이야기다. 한국메세나협회는 LG연암문화재단과 함께 2016년부터 3년째 'LG 꿈꾸는 프로듀서'를 진행하고 있다. 중학생이 현장학습과 같은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인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LG연암문화재단은 LG아트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영국을 대표하는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의 작품 <헨젤과 그레텔>을 관람한 후, 예술감독 크리스토퍼 햄슨(Christopher Hampson), 헨젤 역의 앤드류 피스굿(Andrew Peasgood), 그레텔 역의 베다니 킹슬리-가너(Bethany Kingsley-Garner), 마녀 역의 그레이스 홀러(Grace Horler) 4명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대화를 통해 예술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돌아갔다.

이후 공연을 관람한 학교에 LG아트센터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공연예술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군과 그 역할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공연장과 관련한 업무를 소개하는 책자를 배포해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LG 꿈꾸는 프로듀서

who

교육복지우선학교 7개교의 약 1천여 명의 중학생들,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what

청소년 공연예술 분야 진로 탐색 프로그램

02





01

- 01 서울우장초등학교 학생들과 LG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가 열렸다.
- 02 손짓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은 지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

who
 서울우장초등학교 3학년
 200여 명, 전문 클래식 연주가

what
 강서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에 양질의 클래식
 음악교육을 제공



02

“어린이 여러분! 모차르트 들어봤어요?”

18세기 스타일의 금색 가발을 쓴 무대 위 선생님을 보고 200여 명의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가발은 아직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에게 모차르트의 선율을 들려주는 이곳은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 수업 현장이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이하 사랑의 음악학교)는 LG연암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LG아트센터의 강서구 이전(2020년 이후)에 맞추어 기획되었다. LG연암문화재단에서 다년간 펼쳐온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서구에 특화해, 강서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에 양질의 클래식 음악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21일, 서울우장초등학교 3학년 전체가 모인 가운데 첫 수업이 시작됐다. 수업은 크게 지휘와 작곡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날 수업은 지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박자별로 지휘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 손을 움직이면, 4명의 연주자들이 그 손끝에 따라 곡을 연주했다. 지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이들은 실제 악보가 아니라 자신의 손짓으로 연주 속도가 조절되는 것을 보면서 지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2018년 사랑의 음악학교는 강서지역 6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에서 진행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갈 예정이다. 📌

3 직접 느껴보는 클래식의 매력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학교

환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키즈오페라

<안녕? 딸꾹!>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삐꾹, 삐꾹 삐꾸기가 노래해.

딸꾹, 딸꾹 딸꾹이도 노래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곡인 요나손의 ‘삐꾸기 왈츠’ 선율 위에 주인공 ‘딸꾹이’의 노래가 입혀져 병원 안을 울린다. 처음 들어보는 가사이지만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삐꾹, 딸꾹 노래를 따라 부른다. 친숙한 선율 위에 재미있는 운율을 만드는 가사, 그리고 돌림노래가 더해져 어린 관객부터 어른들까지 고개를 까딱이며 노래를 따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에 삽입된 명곡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편곡해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는 어린이 맞춤형 오페라인 ‘키즈 오페라’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한 위로와 휴식을 선사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8년째 오페라 선율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시간을 병원에 선물하고 있다.

미리오페라단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공연 중인 키즈오페라 <안녕? 딸꾹!>은 노래를 할 때마다 딸꾹질하는 주인공 ‘딸꾹이’의 이야기다. ‘딸꾹질 리듬’을 형상화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자신 없었던 그 모습이 사실은 훌륭한 음악적 재능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환아들은 가수를 꿈꾸는 딸꾹이의 이야기를 통해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 또한 스토리 속에 복식 호흡, 기초 발성, 돌림 노래, 즉흥 랩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연을 함께 보고 즐기는 과정에서 리듬, 가락, 호흡 등 음악과 노래의 기본 요소들을 익힐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까지 보고 있다.

2018년 키즈오페라는 5월 18일 연세세브란스 공연을 시작으로 가천대 길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등 20여 곳에서 진행된다. 공연을 관람한 유은영 어머니는 “아들의 생일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속상했는데, 이렇게 좋은 음악을 생일 선물로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병원 로비에서 하는 공연이라 질적으로 우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뜻밖에 전문 성악가 분들의 훌륭한 음악을 듣고 나니 제 마음마저 한결 가벼워졌다”고 공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어린이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병원환자 뿐 아니라 지역 아동을 초대하는 등 관객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올해 문화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도서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관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01



02



03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키즈오페라

who

20여개 병원의 환아와
가족들, 미리오페라단

what

문화공연을 통해 투병중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주는
위로와 휴식

01 ~ 02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의
키즈오페라 <안녕? 딸꾹!>을 보기 위해
환아와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03

키즈오페라 <안녕? 딸꾹!>은 공연과
책으로 두 번 즐길 수 있다.

Interview

서향순 가천길병원 사회공헌실 실장

Q 병원에서 어린이를 위해 진행하는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나요?

A_대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자원봉사를 위해 찾아와 마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미술이나 동화구연 프로그램도 종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편인데요. 좀 더 많은 분께 힐링의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키즈오페라를 신청했습니다.

Q 공연을 보신 소감은?

A_마술 공연의 경우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좋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공연도 비슷하긴 한데, 이 키즈오페라는 아이들뿐 아니라 보호자 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공연이라 좋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보면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들까지 다 동원돼서 밤새 간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키즈오페라가 환아들뿐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에 대한 큰 기대 없이 가볍게 보러 오셨던 것 같은데, 공연을 보고 난 후 성악가들의 멋진 노랫소리에 감동받아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아가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Q 지난해와 올해, 키즈오페라 <안녕? 딸꾹!>을 연속으로 관람했습니다.

A_공연의 흐름 자체는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탭댄스 같은 장면들이 추가되고 의상이나 소품들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공연의 내용을 책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좋았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공연을 선보이지 못해 아쉬울 뿐입니다.

한국미술의 미래, 신진 작가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 예술지상 2018 증서 수여식'이 지난 5월 17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미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두 차례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예술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김창영, 서민정, 서원미 3명의 작가를 올해의 지원 작가로 최종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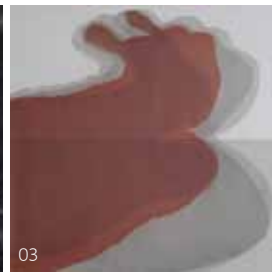
'종근당 예술지상'은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을 맺고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전시기회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대안공간인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2012년에 마련되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21명의 작가를 지원했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현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신진 작가가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여 신진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 2년간 국공립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비영리 창작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은 만 45세 미만 평면회화 작가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매년 3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매년 1천만 원씩 3년간 총 3천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김창영 작가는 "국내 신인 작가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작품 활동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화가들이 많다"며 "종근당 예술지상은 3년간의 장기지원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종근당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미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는 11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에서 2016년 선정 작가인 김수연, 박광수, 위영일 작가가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01
종근당 예술지상 증서 수여식 현장

02
서원미 <The Black Curtain 625 002>, Oil on canvas, 72.7x90.9cm, 2017년

03
김창영 <illusion 02>, Oil on canvas, 183x183cm, 2011년

04
서민정 <SAYONARA>, 장지에 채색, 180x180cm, 2017년



5월 20일부터 1주일간
춘천시 일대에서 '춘천마임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30주년 맞은 춘천마임축제, 축제의 도시를 쌓아 올리다 ²

현대백화점 & 춘천마임축제

세계 3대 마임 축제 중 하나인 '춘천마임축제'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과 중앙로 등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대백화점의 후원과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막 프로그램 '물의 도시 아수(수)라장'을 시작으로 8일간 13개국 52개 팀 500여 명의 아티스트가 마임, 서커스, 무용, 파이어 쇼, 라이브 페인팅, 디제잉, 국악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선보였다.


'물의 도시 아수(수)라장'은 춘천의 문화적 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한 공연이다. 소양강에 물도깨비가 산다는 신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소양강 처녀와 물도깨비의 희로애락을 에어리얼 퍼포먼스(공중 곡예)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냈다. 축제극장 '몸짓'에서는 핀란드의 시르코 아에레오와 토마스 몬스크톤이 21일과 22일 한 차례씩 작업실 안 방향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창조적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 '더 아티스트'를 선보였다.

축제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무대도 마련했다. 아티스트들은 21일부터 4일간 직접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무지개 동산, 밀알일터, 양지노인마을로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춘천 문학공원에서 23일과 24일, 춘천의 봄바람을 따라 여행하는 '봄의 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며 아티스트에게 춤

을 배워 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5월 22일 KT&G 상상마당 일대에서 진행된 '마임 프린지'는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신진 예술가들이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펼친 무대였다. 폐막 프로그램이자 축제 하이라이트인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밤샘 이벤트로 열렸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설치 조형물에 접화하는 파이어 워크(Fire work)는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이어 포니케의 아프리카 댄스와 타악이 어우러진 파이어 콘서트까지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황인선 춘천마임축제 총감독은 "물에서 불까지 이어진 8일간의 축제에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열정과 활기를 보여주었다"며, "축제에서 보여줬던 뜨거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대백화점은 2017년부터 춘천마임축제위원회와 결연을 맺고, 춘천마임축제 후원과 함께 전국 현대백화점 내에서 마임공연과 클래식과 마임 현대무용의 콜라보 공연, 마임광대 서커스 공연, 버블과 마리오네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는 국악 명인의 산실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



차세대 국악 명인을 뽑는다 ③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


현대자동차그룹 &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과 (재)전통예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협찬하는 '제38회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 대상 경연에서 대금 부문 이대현 씨가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해온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에서는 지난 두 달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 부문별 금상 수상자들이 실력을 겨뤘으며, 국악계 교수, 작곡가,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20명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대현 씨를 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신설된 국무총리상에는 거문고의 최용석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부문별 수상자로는 김대윤(정가), 손성국(작곡), 임도경(가야금), 변우림(피리), 민아영(민요/가야금병창), 김수진(아쟁), 박소영(해금), 조정규(판소리) 등이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대현 씨는 "여러 번의 도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는 앞으로 기량을 연마하는 데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의 금상 수상자들에게는 해외 문화탐방 기회와 국립국악원 공연 출연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기악, 현악, 성악 부문별 1위가 남성일 경우 예술분야 병역 특례자로 추천한다.

피리, 가야금, 대금, 해금, 거문고, 아쟁, 민요·가야금병창, 정가, 판소리, 작곡 등 10개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온 나라 국악 경연대회는 1981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38회를 맞이했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악경연대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롯데월드를 찾은 소아암 아동들의 즐거운 나들이 모습

소아암 아동들의 꿈을 담다 ⁴ '드림마스크'

롯데월드 & 에이드런

롯데월드는 아동 미술교육 전문 단체 에이드런과 함께 지난 5월 3일 소아암 인식개선을 위한 '드림마스크'를 출시했다. 롯데월드 '드림마스크'는 소아암 아동들이 면역력이 부족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두고, 소아암이 전염될 수 있어 마스크를 쓴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CSR 캠페인이다. 이번에 출시한 '드림마스크'에는 아픔을 딛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싶은 소아암 아동들의 꿈을 상징하는 나비 모양 패턴이 사용됐다.

마스크 출시에 앞서 롯데월드는 에이드런과 함께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미술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롯데월드 임직원 봉사단도 참여해 소아암 아동이 자신의 꿈을 담은 나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나비 그림은 귀엽고 알록달록한 패턴으로 꾸며져 '드림마스크'의 디자인으로 적용됐다.

'드림마스크'는 필터(PM2.5) 10매와 유기농 면 100% 안감으로 제작된 마스크가 한 세트에 아동용 2종, 성인용 2종으로 구성됐다. 그중 3,500개는 소아암 아이들이 치료 중인 어린이병원과 재학 중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기부된다. 동시에 롯데월드 어드

벤처와 서울스카이 상품숍에서 7월 말까지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마스크 출시 기념으로 직접 나비 그림을 그렸던 소아암 아동들과 가족 50명을 롯데월드 어드벤처로 초청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롯데월드는 2016년부터 임직원으로 구성된 롯데월드 사뤼데봉사단을 통해 합창공연 무대에 서고 싶은 소아암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드림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암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음원 '별들의 이야기'를 발매하는 등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스크 제작에 함께한 에이드런은 아이들의 그림 속 순수하고 창의적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서울의 한 복지관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선물하던 봉사팀으로 시작해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디자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올림픽의 도시? ⁵ 문화·예술의 도시! 평창

동성코퍼레이션 & 평창대관령음악제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한국의 도시는 단연 '평창'이다. 오랜 기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염원이 지방 소도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시켰다.

처음 시작은 2004년, 롤모델은 미국의 아스펜음악제였다.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고지에 위치한 폐광 마을 아스펜이 음악제를 통해 세계적인 음악 도시가 됐듯이,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평창도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서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15번째 해를 맞이한다.

음악학교, 마스터클래스,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온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이제 그 시간이 빛어낸 열매를 맺고 있다. 특히 평창음악학교는 음악제의 핵심프로그램 중 하나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세계적 연주자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스승의 연주를 직접 관람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 클라

라 주미 강 등이 모두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음악학교 출신으로, 연주자로 데뷔한 이후에는 아티스트로 무대에 섰다. 아티스트로 무대에 참여했던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올해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음악감독으로 축제를 진두지휘한다.

'자연의 영감'이라는 테마로 출발선을 땀던 음악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해왔다. 초대 예술감독으로 7년간 활약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강효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접목을 통해 음악제의 초석을 다졌고, 규모나 질적 도약을 일궈준다는 평을 받는 2대 예술감독 정명화·정경화 자매는 세계의 음악을 깊이 있게 소개함으로써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올해 32세의 나이로 음악감독이 된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 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역축제로 시작한 음악제가 자리를 잡고, 어엿한 국제음악제가 되기까지 각계 각층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기업의 협찬, 후원도 이



어졌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축제이자, 차세대 클래식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행사가 더 좋은 콘텐츠로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빠질 수 없다.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동성코퍼레이션 백정호 회장도 이러한 뜻에 동참하고자 꾸준히 평창대관령음악제를 후원해오고 있다.

한여름, 청정한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바캉스를 즐기는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이제, 축제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 또한, 평창을 올림픽 개최지를 넘어 문화, 예술의 도시이자 미래의 예술인을 양성해내는 인재의 산실로 만들었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통해 음악을 넘어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해나가는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제15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멈추어, 문다'라는 주제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진행된다. ❖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난 평창에서 개최되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첫 사랑을 테마로 한국 근·현대 소설을 엮은 뮤지컬 <얼쑤>

한국 단편소설의 재탄생, ⁶ 뮤지컬 <얼쑤>


예술지원 매칭펀드 케이옥션 & 우컴퍼니

한국 근·현대 단편소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은 뮤지컬 <얼쑤>가 대학로 자유극장 무대에 올랐다.

우컴퍼니가 2016년 무대에 올렸던 뮤지컬 <콩깍지>은 <사랑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 세 작품을 엮고, 옥희를 화자로 내세워 각각의 특징에 맞는 시점으로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 후 속작인 <얼쑤>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김유정의 <봄봄>, 오영수의 <고무신>을 ‘첫 사랑’이라는 공통된 테마로 엮었다. 사랑이 바탕이 돼 일어난 여러 사건과 인물 간의 감정변화에 주목하면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90년 동안 책 속에서만 살던 유쾌한 당나귀들은 내레이터가 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단편 소설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들려주겠다고 신명 나는 판소리와 민요를 부르며 극을 시작한다.

<얼쑤>는 교과서를 통해 흔하게 알려진 작품들을, 각 작품에서 집중하는 감정 요소에 판소리와 민요를 접목하여 감수성을 자극하는 음악극으로 재탄생 시켰다.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하룻밤 사랑을 나눈 뒤 사라진 소녀를 잊지 못하던 허생원이 자기 아들로 보이는 동이와 우연


히 만나게 되는 이야기에서 ‘사랑’을, <봄봄>은 딸인 점순의 키가 크지 않아 성례를 올려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장인과 데릴사위의 신경전 속에서 ‘웃음’을, <고무신>은 사랑을 꽃피우던 옛장수와 남이가 아버지의 명으로 한순간에 헤어지면서 겪는 먹먹한 ‘슬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소규모 뮤지컬이지만 키보드, 고수, 피리, 가야금이 모든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도 관객들의 호평을 받는 요소다.

이번 공연을 지원한 케이옥션은 대한민국 대표 미술품 경매사로, 한국 근·현대 작품들과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한국화 및 고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미술품 시장의 저변 확대와 미술품 경매의 활성화를 위해 자선경매 및 채리티 콘서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결연을 계기로 지난 4월 뮤지컬 <얼쑤>의 배우들이 채리티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케이옥션 아트타워 내의 작품 전시 공간에서 진행된 국악 뮤지컬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앞으로도 미술품 및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흥겨운 판소리 한마당 ⁷ 〈안숙선과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농협세종본부, 이텍산업 &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이 매월 진행하는 문화 메세나 공연 <여민락 콘서트>가 지난 4월 18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로 세종 시민들을 만났다. <여민락 콘서트>는 한국메세나협회의 '2018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과 8개 기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농협세종본부와 이텍산업이 후원했다. <여민락 콘서트>는 시즌별로 설정된 장르에 맞춰 매월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해설이 있는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윤희과 함께 '팝'을 주제로 시작한 시즌 1에 이어, 시즌 2는 관람객 의견조사 중 높은 지지를 받은 안숙선 명창과 '국악'을 다루며 4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의 주요 대목을 들려주었다. 탄탄한 공연과 쉽고 재미있는 해설, 그리고 판소리 체험시간까지 제공하며 총 320석 규모의 공연장은 매회 관객들로 가득 차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첫 공연의 관객 평균 연령은 약 56.2세로 <여민락 콘서트> 진행 이래 가장 높은 연령대를 기록했다. 특히 97세의 어머니와 59세 막내아들이 함께 공연을 찾는 따뜻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출연진으로는 'KBS-FM 흥겨운 한마당'의 윤종강(진행자), 고수 조용복(現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수석)과 함께 가야금 병창 박현진(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박혜련(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 참여했다. 세종시문화재단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신생도시인 세종시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여민락 콘서트가 세종시민이 원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시민들과 함께한 문화 메세나 공연 <여민락 콘서트>



예술가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 코코 샤넬

Coco Chanel

01



향수의 대명사 '샤넬 N°5'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릴린 먼로가 어느 인터뷰에서 "샤넬 N°5와 함께 잠에 든다"고 말한 것은 그 명성이 얼마나 공고한 것이었는지 알려주는 한 토막의 일화다. 20세기 프랑스는 물론 세계의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1883~1971). 스스로 명품이 된 그의 일생에서 예술은 영감의 원천이자 가장 가까운 친우였다.



02



03

01
20세기 패션계의 여제로 군림한 샤넬 당대 예술가들의 뮤즈이기도 했다. ©Chanel

02
샤넬이 소녀 시절을 보낸 오바진 수녀원 ©Patrick Fondaneche

03
1962년 <이브닝 스탠더드>에 실린 노년의 샤넬 ©게티 이미지

04
100년 가까운 역사동안 전 세계 여성의 소중한 향수 아이템이 된 CHANEL N°5 ©Chanel

불우한 시절을 극복하고 패션계의 여제가 된 샤넬

장돌뱅이였던 샤넬의 아버지는 아내가 폐병으로 죽자, 세 딸을 오바진 수녀원(Abbey of Aubazine) 부속 고아원에 맡긴다. 둘째였던 샤넬은 이때 겨우 열두 살. 이후 세 딸은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사춘기 시절일 나이였지만 샤넬은 절망과 혼돈 대신에 자유로운 공상을 즐겼다. 답답한 수녀원 내의 일상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여겨봤다. 샤넬의 상징이라 불리는, 하얀 칼라와 소매가 인상적인 심플한 검정 드레스는 이 시절 수녀들의 옷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다. 훗날 샤넬은 수도승과 수녀들, 죽은 자의 색인 검정을 자신만의 색으로 삼았다.

스무 살이 되어 수도원 기숙학교를 졸업한 샤넬은 기병연대가 주둔하던 도시 물랭의 봉제회사를 다녔다. 저녁에는 클럽의 가수로 일했는데, '코코'라는 애칭을 얻은 것이 이 무렵이다. 당시 샤넬은 남성용 승마 바지와 조끼, 풀오버 스웨터 등을 여성용으로 변형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얼마 후 아서 에드워드 카펠(Arthur Edward Capel)이라는 사업가를 만나 파리의 패션 거리 캉봉가(rue Cambon)에 샤넬 모드(Chanel Modes)라는 모자 가게를 열었다. 차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샤넬은 프랑스 북부의 휴양도시인 도빌에 부띠끄를 열고, 활동성이 편한 카디건을 제작해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라고 했던가, 후원자이자 연인이었던 카펠이 1919년 숨을 거두고, 다음 해에는 동생 앙투아네트까지 사망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한동안 일손을 놓는다. 방향을 끝내고 복귀해서는 새로이 향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심플함이 특색인 리틀 블랙 드레스를 성공시키며 명성을 확고히 한다. 1925년에는 웨스트민스터 공작을 만나 청혼을 받지만 아내의 역할, 어머니로의 역할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던 그는 평생 독신을 결심한다.

이즈음 샤넬에게 위안이자 안식처가 된 것이 그의 주변에 있던 여러 예술가들과 교우하며 기꺼이 문화예술계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특히 러시아의 드미트리 대공의 주선으로 향수 전문가인 샹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에르네스트 보(Ernest Beaux)를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일생에서나 향수 역사에서나 전환점이 됐다. 그는 에르네스트 보와 협업하여 향수 '샤넬 N°5'를 선보였다.

04



05

샤넬이 레이어드 룩의 힌트를 얻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The Endless Enigma>
©Olio su Tela

06

2011년 개봉된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Jan Kounen

07

신고전주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경력 초기에
샤넬의 지원을 통해 파리 사교계에 등장해 알려졌다.
©George Grantham Bain Collection



05

샤넬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 예술가, 저명인사들과
두루 교류하면서 시대적인 조류를
가장 빨리 습득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았다.

“전쟁을 피해 체류했던 북극 지대의 감미로운 향기를 재현한 것이예요.”

샤넬 N°5의 향수병은 당시 미술계에서 유행하던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C자 두 개를 겹친 샤넬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그 자체가 한 브랜드가 됐다. 당대를 주름잡은 그의 영향력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전혀 퇴색함이 없었다. 1953년 71세의 ‘올드 레이디’로 패션계에 복귀했을 때, 그는 허리를 조이는 원피스 대신 투피스를 선보였고 발꿈치가 드러나는 샌들과 검정색 드레스를 크게 유행시켰다. 몇 년 후 기자들이 그에게 농담섞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시니컬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식사는 뭘 드십니까?”

“아침에는 치자꽃을, 저녁에는 장미꽃을 먹지요.”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백 살, 아니 그날그날 따라 달라요.”

예술가들을 돕고, 창작 작업에서 영감을 얻은 샤넬

샤넬은 애인이었던 카펠과 웨스트민스터 공작, 평생지기였던 미시아-세르트 부부를 통해 상류층 인사와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예술가들과도 자주 교분을 쌓았다. 이들은 대부분 당대의 가장 아방가르드한 인물들이었는데 예술 비평가이자 공연기획자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 무용가 니진스키(Vatslav Nizhinski), 작곡가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를 비롯해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등의 신진 화가들, 장 콕토(Jean Cocteau)와 같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친했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학과 예술에 대해 문외한이란 콤플렉스가 있었던 샤넬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시 예술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후원이라는 방법으로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예술 작업에 구현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꼈다.

여섯 장의 그림을 겹쳐 놓아야 완성이 되는 달리의 <The Endless Enigma(1900년 작)>에서 레이어드 룩의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한때 샤넬의 연인이었던 초현실주의 시인 피에르 로베르디(Pierre Reverdy)는 “당신에게 바치는 이 시집이 부디 당신의 머리맡을 비추는 은은한 등불이 되길 바라오”라는 시를 바치기도 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장 콥토는 1922년 연극 <안티고네>를 각색하면서 샤넬에게 의상을 맡겼다. 훗날 장 콥토는 샤넬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녀는 화가, 음악가, 시인들에게나 가치 있을 법한 규칙에 따라 패션의 세계에 임했다.”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샤넬의 신화

샤넬의 예술가 후원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스트라빈스키다. 샤넬의 별장에서 2년간 머물며 피아노곡 <5개의 손가락(5개의 음표에 의한 8개의 쉬운 소품)>이라는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영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여러 종의 전기물에 등장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한 구석이 있었다.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는 증언도, 단순히 샤넬이 생각하고 폄하하는 증언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인지는 분명치 않다. 여하튼 샤넬은 서양음악사상 전대미문의 대소동이 일어난 발레 <봄의 제진>을 다시 무대로 올려 대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물론, 스트라빈스키의 가족까지 돌보며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샤넬이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특이한 점은 결코 대중 앞에 그러한 활동이 소개되는 것을 극구 피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예술가라고도,


그렇다고 디자이너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지낸 자신의 출신이 비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세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그는 이 출신을 감추면서 상류층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에 주목했다. 한편으로는 상류층 인사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다. 물론 순수하게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을 배우고 싶었던 바람도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일까, 샤넬의 패션을 유심히 보면 장르와 장르가 뒤섞인 전위적인 시도들, 다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기존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현대 패션의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은 샤넬의 큰 공로다.

20세기를 관통하며 시대를 자신의 무대로 삼았던 샤넬의 신화와 명성은 예술가들에게도, 일반 대중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06



20세기 문학에서 장 콥토를 무시할 수 없고, 음악에서 스트라빈스키와 미술에서 피카소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불멸의 패션왕국을 구축한 샤넬. 현대인의 삶에 끼친 힘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들보다 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샤넬의 신화는 그가 타계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07

2017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

제5대 관장으로

취임한 최효준 관장.

취임 당시 그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을 제시했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들어본다.



최효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효준

최효준 관장은 1993년 삼성문화재단 수석연구원이 된 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을 거쳐 전북도립미술관장,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 경기도미술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에 서울시립미술관 제5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이력을 살펴다보면 서울시립미술관과의 인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16년 전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과장 시절, 그는 옛 서울고 자리에 위치해 있던 서울시립미술관을 지금의 위치로 신축하고 옮기는 일을 직접 지휘했다. 당시의 현장 실무자가 시간이 지나 수장(首長)이 되어 귀환한 것이다.

경제학도로서 미국 MBA 과정을 마쳤다는 이력도 독특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력을 볼 때마다 어떻게 미술계에 몸담게 됐냐는 질문을 빼놓지 않는다. 그의 답은 항상 '그림에 대한 사랑'이다. 비록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타고나지 못했지만, 그림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취임 일성도 "서울시립미술관을 시민의 삶과 더 밀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대담의 내용이다.



- ◊ 작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을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하는 것이 예술의 힘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술관이 그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까요. 다가오는 9월, ‘좋은 삶’이라는 주제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가 빠르고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당장의 생활이 바쁘니까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환경 문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불러올 잉여계급의 확대 같은 사회 문제 등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런 이야기들을 비엔날레로 끌어올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존의 1인 감독 체제가 아니라 예술·경제·환경·정치·사회 등의 폭넓은 분야 전문가들에게 감독을 맡겼고요. 예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신을 고양시키고 영혼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술관이 그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구요.

- ◊ 서울시립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미술관은 비인격체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죠. 저는 취임 이후 관람객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몇 차례 직접 도슨트로 나서보기도 했고, 미술관 1층에 소감쓰기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받은 관람객들의 후기를 파일로 만들어 계속 확인합니다. 기업에서 모니터 그룹을 만들어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사람들과 교감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체처럼 반응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기 동안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을 즐기기 위해 미술관을 찾는 사람보다는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동떨어진 어려운 장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미술을 한자로 쓸 때, 아름다움 미(美)를 쓰죠. 미술을 단순화시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상 속에서 어떤 색에 맞춰 옷을 입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나 멋진 풍경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것 모두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미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관의 미술은 그 감각을 정제시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니,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것을 끄집어내어 느끼면 됩니다.

- ◊ 하지만 평생 미술관에 가보지 않은 분에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술관 입장에서도 손 안에 쥐어진 스마트폰 속에 재미있는 것이 많은 요즘 사람들을 미술관에 불러들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저는 사람들과 미술관 사이에 놓인 장벽을 깨는 것이야말로 미술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미술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게 미술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요. 미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미술과 일상 속에 다리를 놓는 일을 계속 시도할 생각입니다.

○ 오랜 시간 미술계에 몸담으면서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미술이 해외에서 점점 주목 받기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국 미술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국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나치게 시장의 논리나 정부의 역할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 미술계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미술관의 역할이구요. 미술관이 조금 더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삶에 밀착된다면 우리 미술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 호주 비엔날레를 다녀왔는데요. 함께해준 후원사들을 파트너라 부르며 미술관에 내어 후원기업들을 모두 명시해두고 있더군요. 우리보다 메세나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공립 기관에 후원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 단순히 지원하고 지원받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고 자체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런 후원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영양분이 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해외와 비교해서 공립 기관에 후원을 하는 민간 기업이 좀 드문 편입니다. 미술관이 나서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들도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파트너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 후원을 통해 미술계가 발전했던 우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까운 일본에는 나오시마 섬을 중심으로 한 일본 세토내해 여러 섬에서 3년마다 열리는 국제예술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Setouchi Triennale)'가 있습니다. 소외되고 멀어진 섬 지역을 예술로 되살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프로젝트를 기획한 총감독 프람 기타가와(Fram Kitagawa)는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福武總一郎)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 기업과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기업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봤고, 지역 경제는 살아났죠. 중앙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 붓게 되었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일본을 찾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민'과 '관'이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남은 올 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릴 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6월 12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디지털 프롬나드: 22세기 산책자(6월 12일~8월 15일)>를 개최합니다. '자연'과 '산책'을 키워드로 선별한 소장품 30점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젊은 작가들의 신작 커미션 작업이 어우러지는 전시로, 미술과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끌어낼 예정입니다. 탈식민주의 개념의 재고로부터 출발하여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전시 <보이스리스(6월 26일~8월 15일)>도 준비 중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올 해 10회를 맞이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9월 6일~11월 18일)>이 열립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의 1인 감독 기획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경제·환경·정치·사회 등의 폭넓은 분야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추상회화의 거장 한문 작가의 미술사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한묵(12월 4일~3월 10일)> 전시도 준비 중입니다. ▼▼



국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중국 문화예술 지원의 오늘



중국의 문화예술 지원은 1980년대 덩소평 시대의 개방정책에서 시작된 문화체제개혁 이래 국가의 공적 재정 투입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문화행정 법규와 관리시스템도 함께 변화해왔고,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문화경제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 개선, 유관단체 개혁, 민간(기업) 차원 지원 확대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1953년 ‘중공중앙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매 5년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 중국 문화부(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는 ‘중공중앙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중국 문화부는 1953년
‘중공중앙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 매 5년마다 경제와
사회발전, 문화예술의 번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예술이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기능했던 과거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원 대상과 목적 설정에 있어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번영과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사회주의 가치관의 배양과 실천, 그리고 전통문화를 위주로 한 결과물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단지 이전에는 이러한 지원이 국유단체에만 국한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예술가 개인, 민간 예술단체, 문화관련 민간 기업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하겠다.

사회주의 가치 우선의 제한적인 민간지원 허용

2014년 시작되어 올해 5년째를 맞는 ‘국가예술기금’은 최초로 도입된 전문 기금운영기제로 민간에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 기금 제도의 시초는 급격한 문화단체 개혁과 독립 법인화로 나타난 부작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인데, 이 기금의 발표 시기에 즈음해서 전(全)중국 연극협회 주석, 전국정협(全國政協)위원 등이 해외시찰까지 하며 벤치마킹할 만큼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시작됐다. 초기 검토단계에서는 2억 위안(한화 약 353억 원)에서 시작해 8억 위안(한화 약 1,413억 원)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0억 위안(한화 약 3,5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국무원(중국 최고 행정기관)의 비준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예술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변화와 발전의 과도기 없이 일체의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자 존립이 위태해진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를 단지 방식만 바꾸어서 여전히 정부지원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이 드러난다. 또한, 이 기금 역시 중화민족의 특색과 국가적 가치를 잘 드러낸 작품과 이를 잘 수행해내는 개인 혹은 단체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01
광저우오페라하우스의 내부 모습
©Guangzhou Opera House

02
불 밝힌 상하이 전통문화거리.
중국은 수년 전부터 각 지방에 문화예술 관련 거리 조성, 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TIP257



중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확충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 자금의 보호막이 미치지 못하는 다음 두 영역, 즉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상업 콘텐츠를 비롯해 실험적 양식을 선보이고 다양하고 자유로운(사회주의나 전통계승을 제외한) 주제를 다루는 순수예술 부문의 재원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간기업의 민간문화예술 분야 지원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문화산업 지형의 변화폭이 매우 크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교육,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관련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화 영역으로 눈을 돌리

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익성을 앞세운 후원보다는 구체적 보상이 주어지는 상업적 거래로서의 협찬이나 투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문화지원의 모델은 적지 않으나 대부분 층위가 얇은 관계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업과 대중에게 인식시키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사례를 꼽자면, 소주 산업단지처럼 민간 기업이 중국 정부를 끌어들여 낙후 건물을 공공예술단지로 만든 일이 있고, 달리그룹처럼 박물관 운영을 통해 사회적 환원과 브랜드 가치 증대효과를 얻은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한 후원방식 시도

물론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 내 인식을 조사한 결과(〈비물질문화유산개론 非物質文化遺產概論〉 참조, 2010년)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60% 가량이 우호적 기업 이미지 형성과 매출 증대가 그 목적이라고 답했고,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은 단 5%만을 차지했다.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상하이 공연 당시 모 기업이 이례적으로 한화 약 7억 원에 상당하는 찬조를 했으나, 매체 광고의 횟수나 무상 제공된 티켓의 수량을 생각하면 초기 중국 내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은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등 상업적 목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형 공연장 건립 러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광저우오페라하우스를 살펴보면, 하드웨어가 생긴 것은 광저우 시 정부와 광둥성 정부의 예산 덕분이었지만 운영 자체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적 지원금 없이 자력으로 생존하도록 했다.

이 와중에 미국 메트로폴리탄오페라하우스와의 콘텐츠 합작이나 중국 내 유통망 확보 등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문화복지가 아닌 차원에서의 관객 개발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후원 기업의 명칭을 따서 공연장을 명명한다거나(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동방예술 센터' 등), 기업이 신진 아티스트를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페스티벌을 개최

하는 등 기존 중국 시장에서 보기 어려웠던 방식의 기업의 문화 후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중국 대도시 여러 곳에서 유사한 방식을 차용한 사례를 왕왕 볼 수 있다. 베이징 한 도시만 보더라도 동성구의 소극장벨트(Dong Cheng Theater District), 천단, 서성구 등지에 건립된 50여 개 공연장에서 다양한 해외 합작, 신규 장르 개척, 투어 공연을 통한 프로그램의 유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03





04



05

03
문화기업으로서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신그룹
©CITIC TELECOM INTERNATIONAL


04
홍콩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기업과
개인을 시상하는 홍콩예술후원상 ©HKADC

05
2013년 연속 공연에 들어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상하이 문화광장

기업 차원의 지원 확대, 초기에서 안정기로 발전하는 중

한편, 금융기관이 문화기업들에 대출조건을 완화하거나 파격적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데 중국공상은행, 베이징은행이 일찌감치 이에 앞장섰고 베이징은행의 경우 누적금액이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금융·부동산·에너지·통신 기업인 중신그룹의 경우는 단순 협찬이나 후원을 벗어나 우호적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고 문화를 선도한다는 기치 아래 문화와 스포츠 각 분야에서 많은 후원을 하고 직접 행사를 조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중국 기업 외에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사회공헌이나 문화예술 지원활동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우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활동이 중국 기업들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한국 기업의 사례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문화행사나 유명 예술 단체 위주였던 지원 대상도 예술가 개인의 창작을 지원한다거나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중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었던 까닭에 초기에는 제도적 미비점, 관리·운영상의 체계 부족, 장기적 계획 부재 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후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운용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하는 기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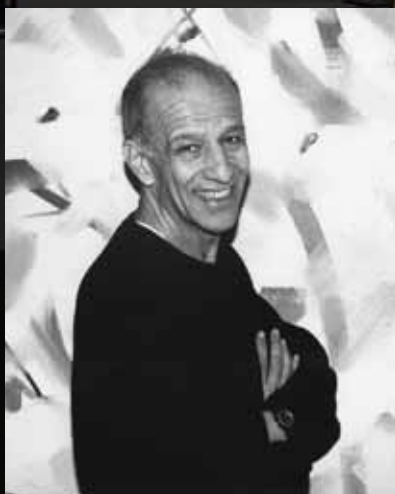
홍콩의 경우는 홍콩예술발전국(HKADC,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에서 예술후원상을 만들어서 예술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고 있는데, 중국 대륙 내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행정기관에서 신설하여 기업 후원을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안은 단지 장려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과 문화예술 후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납세, 재정 등 방면의 금융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단순한 광고 행위 외에도 다양한 층위의 후원활동에 장점이 있음을 기업들이 차츰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기업의 소득세법이나 공익사업에 관련된 법률규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lex Katz, Models & Dancers: 아름다운 그대에게

롯데뮤지엄

알렉스 카츠(Alex Katz, 1927~)

192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알렉스 카츠는 1946년 맨해튼에 위치한 쿠퍼 유니온 미술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회화를 수학하며 당시의 미술이론과 기법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1954년 뉴욕의 로코 갤러리(Roko Gallery)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그는 문화계 인사들과 예술적 교감을 쌓으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사실주의적인 회화에 매료되어 본격적으로 초상화 작업에 뛰어들 그는 자신의 부인 아다(Ada)에서부터 화가, 시인, 무용가, 패션모델 등의 초상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뉴욕 적이고 우아하며 세련된 인물들을 보여주는 화가로 자리매김한다. 1960년대부터는 알루미늄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컷-아웃(Cut-Out)이라는 이름으로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풍경화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들어 만개한 꽃들이 캔버스 전면을 뒤덮는 카츠만의 독특한 작품들로 재탄생하게 된다.



01
Darisa, 2015, Oil on linen, 121,9x284,5cm

02
Ada, 2011, Oil on linen, 203x213cm

03
알렉스 카츠와 아다



01

독창적인 초상 회화 세계, '카츠 스타일'

알렉스 카츠는 특정 미술 사조에 편승하지 않고 색면과 인물의 모습을 결합한 카츠만의 독창적인 초상화 스타일을 창조한다.

평생을 그려온 영원한 뮤즈, 부인 '아다(Ada)'

알렉스 카츠는 그의 부인 '아다(Ada)'의 초상화를 250여 점 이상 그렸다. 그가 표현한 아다의 모습은 뉴욕 상류사회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카츠는 60여 년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무쌍한 아다의 모습을 계속 그림으로써 하나의 개인이 아닌 특별한 도상으로 아다만의 이미지를 창조했다.

02



03





04



05

Laura & Coca Cola Girl

04
Laura 15, 2017, Oil on linen, 121.9x121.9cm

05
Coca-Cola Girl 26, 2018, Oil on linen,
182.9x472.4cm

06
10:30 am, 2006, Oil on linen, 366x488cm

07
Impatiens, 2001, Oil on linen, 152x378cm

08
Coleman Pond [front], 1975, Oil on aluminum,
241x411.5cm

이번 전시의 중심에 있는 '모델과 댄서 시리즈'는 알렉스 카츠의 조형언어가 함축된 중요한 작품이다. 작가는 '댄서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로라>에서, 움직임의 표현을 최소화시키고 주인공의 얼굴과 표정, 강한 목선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한다. 한편, 알렉스 카츠는 2017년부터 강렬한 빨간색 화면에 흰색 레오타드(무용복)를 입은 금발의 여인이 등장하는 <코카콜라 걸> 시리즈를 제작했다.

Landscapes & F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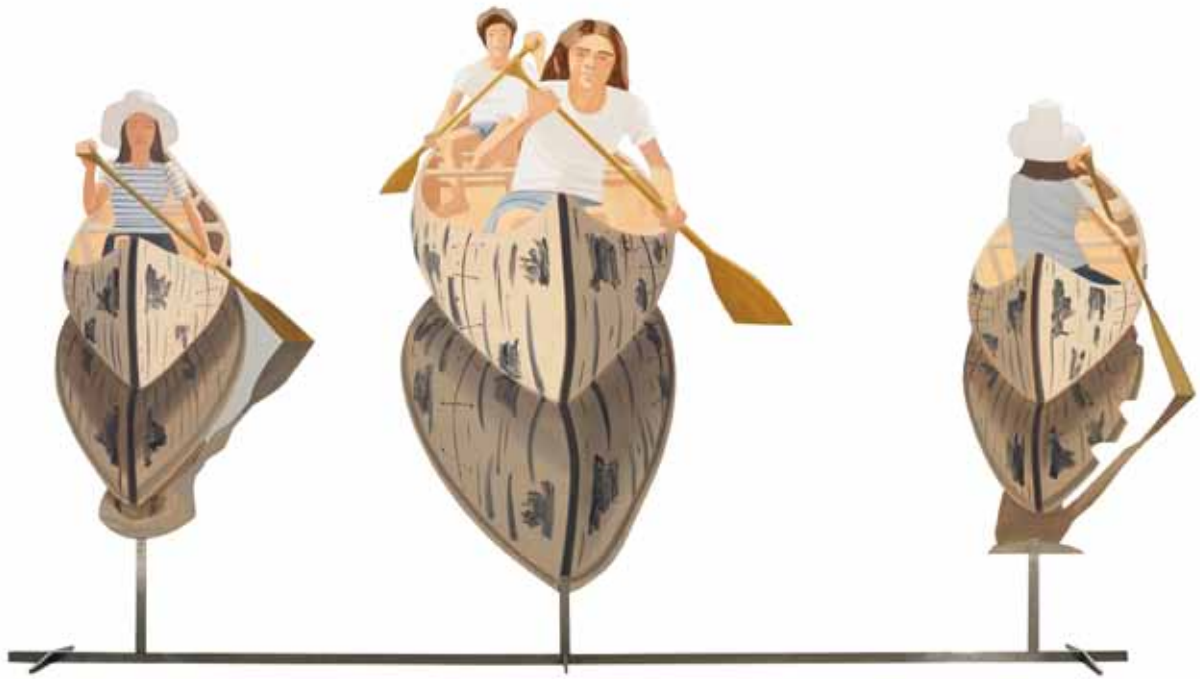
카츠의 풍경화는 그가 작가로 성장하던 시기에 화단을 장악하고 있었던 추상표현주의와 색면추상(color-field painting), 그리고 전면회화(all over painting)와 맞닿아 있다. 원근감을 제거하고 최대한 큰 화면의 풍경화를 제작해 카츠가 풍경을 본 그 순간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다.

06



07






08

Cut-out

평면의 금속판에 그림을 그린 뒤 윤곽을 따라 잘라낸 알렉스 카츠의 특별한 평면적 조각을 컷-아웃이라고 부른다.

“컷-아웃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내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 알렉스 카츠 



‘Alex Katz, Models & Dancers : 아름다운 그대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 4월 25일부터 7월 23일 까지 현대초상회화의 거장, 알렉스 카츠(Alex Katz)의 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로 알렉스 카츠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초상화, 풍경화, 설치작품부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신작 시리즈까지 총 70여 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 '민화'

한국 민화와 유럽·미국 민화

01



02



01

십육나한탱화(十六羅漢幀)는 부처의 제자들 중 대표적인 16명의 제자들을 그린 불화다. 나한들은 저마다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고, 배경에는 산수와 나무, 바위 등이 민화풍으로 표현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02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 <칼레발라(Kalevala)>에서 출정 행진 장면을 묘사한 그림. <Kullervon(악셀리 갈렌 칼레라 작, 1901년)> ©maalaustaide Suomessa

03

만년의 야나기 무네요시
©Nihon Mingeikan, Tokyo

04

1879년 경 윌리엄 모리스의 작업 스튜디오의 모습 ©Edwin N. Peabody



03



04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의
민화는 민속화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민화(民畵)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다. 그는 1929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민예품전람회(민속적 회화라는 뜻의 '민화'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937년 2월, 월간 <공예>에 기고한 글에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유통되는 그림'을 민화로 정의했다. 그는 민화의 범주를 창의성보다 실용성이 강조되고, 몇 장씩 되풀이해 그리는 그림이며 생활공간의 장식물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속적인 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민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인데, 낙관이 없는 서투른 솜씨의 그림(일종의 '속화(俗畵)')에 주목하게 되면서 민화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민화는 낙관의 존재에 상관없이 예술적 수준이 낮은 시골 그림을 뜻하며, 유럽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화가들이 대중적인 취향에 의해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사실 민화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말하기 이전에 영국의 공예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에 의해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모리스는 산업혁명 이후 사회·경제적인 급변 속에서 기계 만능주의가 생활 속의 미(美)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통

해 수공예 중심의 미술공예운동을 펼쳤다. 즉 야나기 무네요시는 이것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민화라는 말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근대 유럽에서 시작된 대중문화주의의 미술

우리나라에서는 민화의 개념이 약간 다른 의미로 통한다. 1970년대부터 민화 붐을 일으킨 사람들-김호연·조자용·김철순 등은 민화를 제각기 설명했는데, 먼저 김호연은 "민화는 우리 겨레의 미의식과 정감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옛 그림"이라면서 민족화, 겨레그림이라고 불렀다. 조자용은 민화를 좁은 의미의 민화와 넓은 의미의 민화로 구분하고, 전자는 조선시대 민화

자료가 재발견되기 이전의 그림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 일상적인 실용성을 첫째 목적으로 한 세속적인 그림으로서, 제작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한국의 전통 신앙과 정서, 미적 관념에 따라 그려진 다양한 옛 그림이라고 말했다. 김철순은 "순수한 민화란 한국회화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비전문적인 화공, 장인들이 대중의 그림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멋대로 그린 어수룩하고, 소박하고, 꾸밈없는 허드레 그림, 그리 대단치 않은 그림"이라면서

05 독일 람브레히트 수도원 제단에 그려진 종교화
©Rollrobooter

06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그린 윌리엄 모리스의 초상화(1870년) ©Stephen Cooate

07 윌리엄 모리스가 야생 자두나무(Blackthorn) 문양을 그린 그림으로, 1892년 제작됐다.
©Edward C. Moore Jr. Gift

08 이 책거리 그림은 흡사 현대 정물화를 연상하게 한다. 다양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있고, 화려한 채색으로 단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시계 등의 소재 등장으로 보아 19세기 이후의 민화로 짐작된다. ©국립중앙박물관

09 인도 우다이푸르에 있는 바르띠야 록 깔라 미술관의 전통 민화로, 행운과 지혜의 신인 코끼리 두상의 힌두교 신을 그렸다. ©Yann Forget

“생활과 실용화로서 한국인의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생활필수품으로 모든 한국인의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중적인 취향에 의해 표현하고 대중이 즐길 그림인 민화가 세상에 존재 가치를 드러낸 것은 19세기부터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대중을 위한 미술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영국의 저명한 미술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빈부 격차를 크게 하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모리스는 미술은 순수한 노동에 의해 탄생한 수공예품이고, 그러한 미술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고 설파했다. 특히 그는 “미술은 소수의 천재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수의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확산된 근대 민화

산업화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되돌아간 사람 중에는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농민미술이다. 이전에는 예술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농민의 생활용품에 농민미술이란 근사한 칭호가 생긴 것이다.

농민미술은 영국을 중심으로 곧장 유럽 각지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넘어가 20세기 초, 민중미술이란 이름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국 민화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대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1930년 뉴왁박물관(The Newark Museum)에서 열린 ‘미국의 원시성, 19세기 민중미술가 전시회(American Primitives, An Exhibit of the Paintings of Nineteenth Century Folk Artists)’다. 미국의 민중미술 아버지인 홀거 캐힐(Holger Cahill)이 기획한 이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Folk Art(민중미술)’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1932년 MoMA(뉴욕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에서 ‘미국의 민중미술(American Folk Art: The Art of the Common Man in America, 1750~1900)’이 개최되면서 민중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됐다.

미국 민화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초상화를 중심으로 하여 풍경화, 풍속화, 역사화, 성경화 등이 그려졌다. 현대인이 스마트폰이나 지갑에 가족이나 연인의 사진을 넣어두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많다.

05



06



07





08



09

민화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로,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받는 예술로
존재할 것이다.


현대적인 민화의 창작과 방향성

대중적인 주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팝아트(Pop-Art)’는 대중문화주의 미술운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모티브로 썼을 뿐 미술을 통한 대중의 혜택에 관해서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인간의 삶에 대해 관찰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귀족적인 권위미술에 보다 가까워졌다. 팝아트가 추상적인 표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중매체와 광고 등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그림에 등장시켜 사회비판적인 의미를 내포시켰다면, 민화는 일반적으로 현실비판이 아니라 현실을 격려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실용미술로써 대중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같은 미술이 바로 민화다.

최근 들어 민화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중적인 취미생활로 각광받게 됐다. 아마추어리즘에서 시작된 민화 창작의 열풍이 전문작가군을 만들게 됐고, 일반 화가들도 민화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여러 미술단체에서 민화분과가 생긴다든지 새로운 창작 영역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미술애호가들의 관심도 지대해 순수 민화가 경매시장에서 1억 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술계의 트

렌드 변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대중문화의 시대를 지향해가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의 민화는 인류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고,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역사를 중심에 놓고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미술이론가 베틀릭스 럼포드(Beatrix T. Rumford)가 민화에 대해 훌륭하게 정의한 말이 있다. “민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예술(Uncommon Art of the Common People)이다” 이 말은, 민화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이지만, 그 안에는 보물과 같은 가치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민화는 천부적인 화가들의 그림이 아니고 작가도 이름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들이 창조한 작품은 경이로운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대중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로서의 민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메세나협회는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메세나 활성화와 문화접대비 활성화 등 협회 발전 방안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5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한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 8일, 김영호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행사다. 김영호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를 통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히고, “메세나 활동은 사회적 이슈나 분위기에 흔들림 없이 진정성과 사회발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메세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예술이 가진 유연한 사고가 경영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조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며 예술의 긍정적인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년 도입된 부정청탁금지법의 등장으로 기업의 문화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 회장은 “문화를 소비하는 활동은 예술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예외조항을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문화소비는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을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소비, 문화접대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화

접대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문화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메세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가가 늘어난 셈이니, 그간 바쁜 일상으로 인해 문화예술과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업 역시 이러한 시류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꼽히는 미술 컬렉터로도 알려져 있는 김 회장은 “현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현대미술, 현대음악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음악·미술·건축·연극 분야의 단체와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한남동 사옥에 현대음악 전문공연장인 ‘일신홀’을 건립하여 현대음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일신작곡상’을 신설, 현대음악 작곡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 메세나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네오메디치포럼 개최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5월 16일 예술공간 수애노339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창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김대진과 함께 '제2회 네오메디치포럼'을 개최했다. 네오메디치포럼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기업인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킹 모임이다.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 진행된 이번 포럼은 'Beautiful Schubert'라는 부제 아래, 작곡가 슈베르트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슈베르트의 후원자 모임이자 예술애호가 모임이었던 '슈베르티아데'가 있었던 것처럼, 네오메디치포럼이 우리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경매 작품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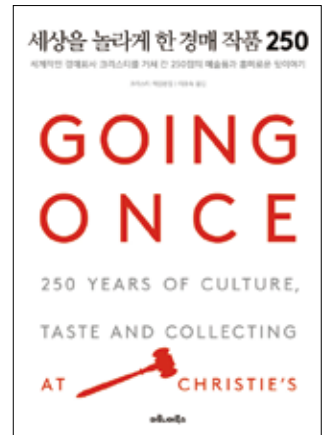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를 거쳐 간
250점의 예술품과 흥미로운 뒷이야기

크리스티 책임편집 | 이호숙 번역 | 마로니에북스

1766년 런던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치열한 경매 현장의 모습을 담아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250점의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생생한 경매의 순간을 비롯해, 수 세기에 걸쳐 진화하는 미학적인 흐름과 취향, 문화적인 변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같은 거장들뿐만 아니라 앤디 워홀, 제프 쿤스, 잭슨 폴록

등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망라되어 있고, 유명인사들의 개인 소장품은 물론 가구·도서·장식품·자동차·의류·보석 등 모든 물품의 가치를 다룬다.

책에서는 경매 작품들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져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 여정과, 그 속에 숨겨진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 책은 지난 250년 동안 많은 예술품의 감식안이자 가치의 지표 역할을 해 온 크리스티의 방대한 기록물이자 흔치 않는 특별한 예술 컬렉션이다.



예술 일상화시대, 아트페어가 축제로 진화한 비결
동성코퍼레이션 <2018 아트부산> 후원

동성코퍼레이션이 4년간 후원하고 있는 <아트부산>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예술을 일상화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2018 아트부산>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녹여내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을 특별한 콘텐츠로 와 닿도록 구성했다. 먼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아트페어와 함께 <2018 아트와 영화 : 예술을 봄> 상영회를 진행했다. 대중적인 콘텐츠인 '영화'를,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미술과 작가의 세계로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트페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문성은 놓치지 않았다. 전시공간은 더욱 효율적인 미술 관람이 가능하도록 신경 썼고, 설치미술가 신지 오마키의 작품을 전시한 특별전은 비엔날레 급으로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성코퍼레이션 백정호 회장은 "국내 미술시장의 저변확대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사랑받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칫 어려운 행사, 대중들과는 동떨어질 수 있는 아트페어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 친근한 하나의 '페스티벌'로 진화시킨 <아트부산>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더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본다.



르네 야콥스의 모차르트를 만난다
롯데콘서트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



롯데콘서트홀에서 7월 6일~7일 모차르트 오페라 최고의 걸작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다. 지난해에 세계적인 지휘자 르네 야콥스와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 <여자는 다 그래>는 2017년 상반기 클래식 공연 중 최고의 화제작으로 언론에 손꼽히며, 단 1회만 공연된 것에 대해 많은 클래식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번에 공연하는 <피가로의 결혼>은 이러한 팬들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끈다.

지휘는 물론 전체적인 극의 연출과 의상까지 담당하며 음악부터 대사까지 맛깔스러운 콘서트 오페라를 이끄는 르네 야콥스, 단순한 오페라 반주가 아닌 단원 모두가 극에 참여하는 듯한 호흡으로 시종일관 생동감을 불어넣는 리드미컬한 연주로 작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다채로운 표현력과 음색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연기와 노래를 선보이는 성악가들이 펼치는 <피가로의 결혼>은 풀버전 오페라보다 훨씬 더 음악적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콘서트 오페라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다.

한편, 지난해 <여자는 다 그래>에서 꺾 많은 하녀 '데스피냐'의 적역으로 평가 받은 소프라노 임선혜가 선보이게 될 <피가로의 결혼>의 '수잔나' 역을 맡아 어떠한 사랑스러운 매력을 드러낼지 기대된다.



‘젊은 음악가와 함께 성장한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유니버설뮤직 코리아 MOU 체결



금호아시아문화재단과 유니버설뮤직 코리아는 지난 5월 4일 문화아트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 젊은 음악가의 성장과 클래식 음반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가 체결됨에 따라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젊은 유망 연주자의 음반제작과 프로모션, 공연기획과 인터내셔널 커리어 지원, 홍보·미디어 마케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MOU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2018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공연실황 음반 제작이다. 양인모는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 이자, 동 콩쿠르가 9년 만에 인정한 1위 우승자다. 거침없고 생동감 넘치는 음색과 절정의 기교들은 이미 그를 새로운 클래식 스타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이번 데뷔앨범은 2018년 5월 3일 금호아트홀 <Reborn Paganini> 공연의 실황으로, 이미 공연 3개월 전부터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공연이기에 이번 공연을 놓쳤던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빼어났던 연주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과 유니버설 뮤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젊은 유망 음악가의 음반을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영국·이탈리아의 고음악을 듣는다’

한화클래식<안드레아스 솔과 잉글리시 콘서트>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한화가 고품격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국내 관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2013년 첫 발을 내디딘 한화클래식은 바흐 음악의 대가 헬무트 릴링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고음악 해석가 리날도 알레산



드리니와 그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정상급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인 18세기 오케스트라,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화클래식 5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고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와 레자르 플로리상의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다.

2018년 한화클래식은 세계 3대 카운터테너 중 한 명인 안드레아스 솔(Andreas Scholl)과 영국의 잉글리시 콘서트(The English Concert)를 초대했다. 6월 14일 천안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6월 15~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과 이탈리아, 두 개의 주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헨델, 퍼셀을 비롯하여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국 작곡가 윌리엄 보이스와 찰스 에이비슨의 음악도 함께 소개했다. 그 밖에 비발디, 토렐리와 같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작품도 연주됐다.

셰익스피어의 장엄한 드라마를 만나는 기회

LG아트센터 오스터마이어의 연극 <리처드 3세>



6월 14일부터 17일, LG아트센터에서 세계적인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Thomas Ostermeier)의 연극 <리처드 3세>가 공연됐다. 작품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과 폭발력을 지닌 무대로 놀라움을 선사했던 독일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는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을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가장 야심차고 매력적인 악의 화신에게로 인도했다. 2015년 2월 베를린 초연 후 그 해 아비뇽 페스티벌과 2016년 에든버러

**함께하는 메세나
회원사 소식**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리처드 3세>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거쳐 대영제국 요크 왕가의 마지막 왕좌를 차지한 리처드 3세를 다룬 셰익스피어의 초기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권력을 향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불구가 된 이 악인을 그려내기 위해, 오스터마이어는 셰익스피어 시대를 연상시키는 반원형 무대를 세우고 꽃가루와 흙먼지가 흩날리는 무채색의 황량함으로 채워 핏빛 살육과 검은 모략의 현장을 더욱 강렬하게 강조했다. 또한 전작 <햄릿>에서 독특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햄릿을 그려냈던 배우 라르스 아이딩어(Lars Eidinger)가 리처드 3세 역을 맡아 흥축한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심리 상태를 마치 신들린 듯한 연기력으로 표현해내며 이 작품을 한 편의 드라마틱한 심리 스릴러로 승화시켰다. 거친 에너지와 폭발력을 다시 한번 느껴본 매력적인 드라마로 큰 호응을 얻었다.

'기억'과 '상실'을 마주하는 인간의 자세
두산아트센터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
연극 <애도하는 사람 悼亡人> 공연



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를 진행한다. 두산인문극장은 매년 상반기 하나의 주제로 사회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주제와 연결된 공연, 강연, 전시를 포괄하는 통합 기획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여정을 떠난다는 기획

으로 무료강연 8회, 무료전시 <THE SHOW MUST GO ON> 1편, 연극 <낯심>, <피와 씨앗>, <애도하는 사람> 3편으로 구성됐다.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애도하는 사람 悼亡人>은 제14회 나오키 상을 수상한 텐도 아라타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죽은 이를 애도하며 전국을 떠도는 주인공 시즈토와 그가 만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행위, '상실'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인공 시즈토 역은 드라마·영화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김동원이 맡고, 시즈토와 함께 애도여행을 떠나는 유키요 역은 영화 <더 킹>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김소진이 함께한다.

동시대 예술을 바라보는 네 개의 경험
코오롱 스페이스K,
<경험의 궤도(Art as Experience)> 전시



코오롱의 문화예술나눔공간 스페이스K에서는 오는 6월 29일까지 기획전시 <경험의 궤도(Art as Experience)>를 열고 있다. 관계와 상황이라는 사회적 토대 위의 동시대 예술을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본 이번 전시에는 김윤섭·범진용·신준만·이윤희 등 네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시대에 부응하며 기존의 미의식을 반성하고 방향성을 모색해온 작가들은 오늘의 예술을 경험의 측면으로 바라보며 저마다의 시점을 화폭에 전개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화면에 대상을 자기화하고 재배열하는 작가들은 관람자의 미적 반응을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번 전시에서 일상적 경험을 예술의 관점에서 환기하는 작가들은 창작과 수용을 미적 경험의 순환 구조 속에서 해석하여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제안하고 있다.

임직원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KT희망나눔재단

<제5회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KT는 지난 5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5회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를 진행했다. 2016년 5월 시작해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연주회에서는 김용배(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의 작품 설명과 이택주(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지휘, 피아니스트 김원,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의 협연으로 진행되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 2,5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우면서 성황을 이뤘다.

KT에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9년 결성된 KT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클래식>을 통해 매월 첫째 주 KT 체임버홀에서 관객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KT 체임버홀은 9년째 1만 원의 관람료를 유지하면서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수익금을 난청 아동을 지원하는 '청각장애아 소리찾기' 사업에 기부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KT 홍보실 윤종진 부사장은 "KT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통해 직원들의 감성 충전과 힐링, 그리고 직원, 가족 간 소통과 화합에 일조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KT그룹 임직원,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여름 밤을 보내는 휴식과 위로의 음식
크레디아 프로젝트 <씨티 썸머 페스티벌-낭만식당>**

한 여름 밤 도심 속 뮤직 페스티벌, <씨티 썸머 페스티벌(City Summer Festival)-낭만식당> 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감성을 살피우는 '맛있는 음악'과 함께 문을 연다. 이 페스티벌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휴식과 위로를 주는 힐링 페스티벌'을 모토로 본격적인 휴가 시즌, '낭만식당'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3일 동안 각각의 날을 책임지는 '마스터' 아티스트가 그 날의 음악을 요리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8월 10일에는 '노리플라이'와 '멜로망스'가 감성 보이스 전문 마스터 세

프'로 관객의 감성을 살피운다. 8월 11일에는 가요계의 음유시인 '루시드 폴'이 '시적 감성 전문 마스터 세프'로 나서고, 조운성(피아노), 황호규(베이스), 진수킴(기타), 신동진(드럼), 파코(퍼커션)과 함께 그간 선보였던 5인 구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악기들을 추가하여 다채로운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8월 12일에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감성 멜로디 전문 마스터 세프'가 되어 김상은(바이올린)과 김상지(첼로)와 함께 영혼을 위로해주는 따스한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당신의 기억을 부를 날씨에 관한 이야기
대림 디뮤지엄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디뮤지엄(D MUSEUM)에서는 오는 10월 28일까지 날씨의 다양한 요소를 사진, 영상, 사운드, 설치 작품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날씨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하는 전시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를 개최한다. 전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의 요소들—햇살, 눈, 비, 안개, 뇌우 등—을 매개로 작업해 온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1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본 전시는 총 세 개의 챕터 '날씨가 말을 걸다', '날씨와 대화하다', '날씨를 기억하다'로 크게 나뉘어 전개되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여섯 가지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수필집처럼 구성된다. 마틴 파(Martin Parr)부터 울리히 포글(Ulrich Vogl)까지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이 참여하는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관객들은 내면 어딘가에 자리한 날씨에 관한 기억과 잊고 있던 감정을 새로이 꺼내보며, 익숙한 일상의 순간이 지닌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메세나

회원사 소개

회장사	간삼건축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일회계법인	재단법인 송강재단	한세실업
일신방직	강원랜드	동아출판	(주)삼화에프앤에프	제우인베스트먼트(주)	(주)한진
부회장사	경남은행	동일방직	삼환기업	제일기획	(주)한화
교보생명보험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FnG(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조선호텔	한화생명
(주)노루홀딩스	광주요	두리비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조은시스템	한화손해보험
동성코퍼레이션	금융투자협회	(주)두산	서울예술기획	종이문화재단	한화케미칼
벽산엔지니어링	금호건설	두산 산업차량(주)	서울옥션	주식회사 차오름에프앤비	현대백화점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금호고속	두산건설	(주)성도GL	지앤히어링코리아	현대자동차
삼양홀딩스	금호타이어	두산엔진(주)	세일ENS	청림출판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설원랑문화재단	금호홀딩스	두산연강재단	세화예술문화재단	카카오	현대차정몽구재단
세아제강	금호미쓰이화학	두산인프라코어	소니코리아	컨슈머타임스	(주)호텔롯데
(주)유니드	금호석유화학	두산중공업	(재)송원문화재단	케이옥션	(주)호텔롯데 면세점
종근당	금호폴리텍	롯데렌터카	(주)스파크인터내셔널	코리아골프앤아트빌리지	호텔신라
코오롱그룹	금호피앤비화학	롯데문화재단	신라교역	코카콜라음료	홈플러스
크라운 해태제과	기업은행	롯데백화점	신성씨에스	(주)크레디아 프로젝트	환경관리 주식회사
풍산그룹	김영사	르노삼성자동차	신한금융투자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힐라코리아
한화갤러리아	나라삼양감속기	(주)맥스무비	신한은행	태영건설	휴맥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나라통상(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카드	퍼시스	BMW코리아(주)
	(주)나우피플	(주)모나미	아시아나IDT(주)	포스코ICT	BNK 부산은행
이사사	네이버문화재단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시아나에어포트(주)	프라임개발	CJ문화재단
가현문화재단	네이처스웨밀리코리아	문화유산국민신탁	아시아나항공	필립모리스	GS칼텍스재단
고려당	(주)노루비케미칼	미디어월	아이엔지생명	하나은행	(주)HK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노루오토코팅	미래에셋대우	(주)아이피케이	(사)한국FPSB	(재)KBS교향악단
디자인하우스	(주)노루페인트	법률사무소 C&B	(주)에스원	한국GM	KB국민은행
사라	녹십자	베이글카페	영앤임섬 주식회사	한국경영자총협회	KDB생명
(주)신세계	뉴서울 컨트리클럽	보령제약(주)	오리콤	한국공항공사	KT
이건홀딩스	뉴스킨 코리아(주)	본아이에프(주)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공항주식회사	KT&G
전국경제인연합회	뉴욕제과	블보건설기계코리아	올림푸스한국(주)	한국광고주협회	LG생활건강
파라다이스그룹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주)브레드가든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국국제교류재단	LG전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다진	삼성SDI	우리종합금융	한국남동발전	LG화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상	삼성SDS	우진	한국마사회	LH
효성	대상문화재단	삼성물산	우진건설(주)	한국무역협회	LMS
한성자동차	대상산업가스	삼성생명	원마운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OCI
POSCO	대신증권	삼성서울병원	원암문화재단	한국서부발전	SK건설
SK SUPEX추구협의회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원포시스(주)	한국수력원자력	SK네트웍스
사회공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유안타증권	한국암웨이	SK에너지
LG연암문화재단	(주)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유중아트센터	한국예탁결제원	SK증권
회원사	더페이스샵코리아	삼성증권	이상일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경남스틸	도서출판 '삶과 꿈'	삼성카드	이건산업	한맥도시개발	SK해운
가나아트갤러리	동서식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인산죽염 주식회사	한미회계법인	TCC동양
		(주)삼양인터내셔널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미약품	
		삼익문화재단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한빛문화재단	

NEW MEMBERS

이상일문화재단

이상일문화재단은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진그룹 이상일 회장의 철학에 따라 설립됐다. 재능 있는 창작예술인 양성, 문화예술의 대중화,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REZIA Projects

2017년 12월, 크레디아의 자회사로 독립한 크레디아프로젝트는 기업과 함께 협력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카드·포스코·동서식품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삼성·신세계·대한항공·현대·롯데·기업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그룹의 고객초청 이벤트와 사넬·라프레리·포르쉐 등 명품 브랜드의 프라이빗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크레디아 파크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있다.

아버지의 카메라라는

I am your Energy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웃을 때도, 울 때도,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던 아버지의 카메라,
가족끼리 소중한 추억, 하나라도 더 남겨 놓으려고,
셔터를 누르기 바쁘셨던 당신의 그 마음,
아버지가 되어서야 헤아려 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야 하는

엄마라는 일

그 어떤 경력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스펙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나를 아끼자



대한민국
피로회복제